

청산도 구들장논 380년 전 아닌 700년 전 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청신호'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완도 청산도 구들장논.

토기조각 연대 측정서 밝혀져 완도군 12월 문화재청에 신청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완도 청산도 구들장논의 역사가 700년 전으로 밝혀지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청신호가 켜졌다.

23일 완도군에 따르면 그동안 구들장논 조성 시기는 토양층의 퇴적 시기를 기준으로 최소 약 380년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연구를 통해 발견된 토기편의 연대 측정 결과 700년 전후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고려 선종(1092년) 때 최사겸의 유배 기록

과 백성 거주에 대한 기록인 태종실록(1409년) 등 거주와 농경 시기를 사료로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물증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완도군은 관리 계획을 수립해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서 작성을 준비 중이며 오는 12월 문화재청에 등재를 신청할 예정이다.

완도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지난 2017년 완도 전역에서 기초 학술조사를 했다.

2018년 국제학술회의의 자문과 지난해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거쳐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청산도, 여서도 일대의 구들장 논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자료 확보와 등재 논리를 수립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호인 청산도 구들장 논은

2014년 4월 세계식량농업기구의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됐다.

구들장논은 경사가 심한 지형에 돌로 구들을 놓는 방식으로 석축을 쌓고 흙을 다져 만들었다.

특히 위 논에서 아래 논으로 이어지는 지하 암거 구조를 통해 농업용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청산도 구들장 논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유네스코 완도'는 군역점사업인 해양치유산업과 연계돼 지역 발전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코로나로 힘든 문화관광해설사들에 활동비 지급

완도군, 생활 안정 돕기

완도군이 코로나19로 활동이 중단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23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월29일부터 문화관광해설사들의 활동이 잠정 중단된 상태라며 해설사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완도군은 맞춤형 SNS 활동을 통해 활동비를 지

급할 방침이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의 사회봉사·복지형 일자리로 급여가 아닌 활동 실비를 지급받고 있다. 해설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완도지역에서는 4개 읍·면에서 13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 중이며, 하루 5시간 이상 활동 시 7만원의 활동비를 받는다.

완도군은 SNS를 활용해 홍보할 수 있는 완도의

숨은 명소 찾아내기, 독특한 음식·숙박, 관광 연계 프로그램을 발굴해 내용과 사진을 제출하면 엄격한 평가를 거쳐 활동비를 지원한다. SNS 활동은 주 3일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일 장소와 유사한 콘텐츠는 인정하지 않는다.

활동 자료는 군 대표 SNS를 통해 홍보하고 향후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봄 축제가 취소되고 상춘객들의 발길이 묶여 있는 시기에 SNS를 통해 관광 욕구가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진도군,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100% 지원

농가당 200만원 한도

진도군은 안정적인 청정·명품 축산물 생산과 공급을 위해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우, 돼지, 닭, 오리, 염소 등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농업법인)로, 농가당 200만원 한도로 인증비용을 100% 지원한다.

진도군은 인증비 지원을 통해 지역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를 32호에서 46호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육환경과 사육조건, 자급사료기반, 가족의 입식·출하, 사료와 영양관리 등 친환경 인증기준에 맞게 가축을 사육하고 등록된 인증기관에 친환경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또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는 농가(농업법인)는 2년 주기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지난 10일부터 개설된 온라인 과정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안정적인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목포해경, 외국인 선원 자가격리 위반 특별단속

목포해양경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선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와 위반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보건소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해양·수산업 종사하는 외국인의 자가격리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다. 감염병 예방법에는 격리조

치 의무 위반자와 고음주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자가격리자 본인은 물론 주변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위반 사례가 없도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삼향농협, 2019 종합경영평가서 우수농협 선정



지난 20일 무안 삼향농협 본점에서 김석기 전남본부장 등 농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향농협에 대한 '경영향상 우수조합 시상식'을 했다.

<삼향농협 제공>

삼향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2019년도 종합경영평가'에서 경영 향상 부문 우수농협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경영 향상 우수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전국의 농협을 대상으로 경영 건전성 확보와 사업 실적, 조합원 실익증진 등을 평가해 선정하고 있다.

삼향농협은 지난 20일 무안군 삼향읍 본점에서

김석기 전남본부장을 비롯한 농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조합 시상식을 했다.

나용석 삼향농협 조합장은 "경영 향상을 사랑하고 이용해 준 조합원과 고객들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조합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